

등록번호: 경기제00107 등록일: 2006년 8월 7일
 발행일: 2012. 8. 1 간행: 각월간 발행인: 박공명
 편집인: 박공명 발행처: 우리네
 본사: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신성리 92-2번길 87
 TEL 031)634-7990 FAX 031)634-7991
 중부영업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24 청구빌딩 717
 TEL 031)712-7001 FAX 031)712-7009

정기간행물 등록 34호 Vol.56 | 우리네 소식지는 고객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배포합니다. 이 내용 사진자료는 무단복제, 배포를 금합니다.



유럽의 완성형 화분에 심겨지는 식물들은 일반적인 종자로 증식되는 식물이 아닌 분주나 삼복에 의해 증식된다. 따라서 용기 안에서 다른 식물체와 경쟁관계에 있지 않아 하나의 개체로 적절한 자랄을 유지한다. 하지만 우리의 식생매트안의 식물들은 수반 개체의 종자로 번식되어진 식물들이 서로 이끼려고 키를 키우고 나약하게 성장하여 유통시 아름다운 품을 유지한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세력이 약해져 버린 정원의 식물들로 인해 모두 황폐한 정원으로 되돌려 지는 것이다. 오히려 적절하게 혼합한 종자를 처리하는 게 더 나을 지도 모른다. 그 비용 차이는 이미 100배가 난다. 그러면 유럽이나 선진국에서는 식생매트가 있을까? 그렇지 않다. 오히려 매트형이 나온 식물들은 거의 대부분이 매트로 재배되고, 거래되고, 적용된다. 이들 매트 재배식물들은 런너를 뻗어 번식하거나 땅을 기는 식물들이다. 특히 땅 피복식물인 헤데라(송악), 애기백분동, 그리고 비관리형 옥상에 많이 적용되는 포복형 세덤매트와 기타 런너를 대어 기거나 땅속으로 이동 번식하는 식물들이 이렇게 재배되어 유통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식물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재식기리는 식물이 다 자랐을 때의 키 혹은 폭과 같은 넓이를 두어 재배하면 좋다. 그러면 역세는 2m, 후폭스는 80cm, 관중은 60cm, 옥잠은 60cm가 좋다 뜻이다. 일반적인 조경전문가에겐 이해할 수 없겠지만 사실이다. 역세의 아름다운 자태는 쓰러지지 않은 상태로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은 상태의 아름다운 잎을 펼친 모습으로

그 모습을 상상해 보라. 그리고 옆에는 아름다운 후폭스가 키 80cm에 폭 70cm쯤으로 자라서 웃는 모습, 그리고 봄에 자랐던 금낭화의 마른 줄기를 지나 다시 가을에 피어날 아스타의 흰꽃 볼 형의 잎보, 다시 역세의 위용.....

이들 식물들은 조경가의 선택에 의해 심겨진 자리에서 포기를 키우며 움직이지 않고 충분한 태양과 양분 그리고 바람까지도 이들을 매우 튼튼하고 가장 아름다운 상태로 자라도록 허락한다. 이들 식물을 일정공간에 떨어 넣어 풍나를 기르듯이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지만 별개미취, 아주가, 비비추, 맥문동, 송악, 돌나물 등 기거나 포복지를 내는 식물은 뿌리가 얇고 물을 좋아하는 특성이 있어 깊고 큰 포트 보다는 얇고 넓은 용기에 재배하여 매트화 하는 것이 당연히 유리하다. 따라서 이제 우리 조경계도 식물의 생태와 조경기법에 따른 식물의 선택과 재배 유통에 이르기까지 고민해야 할 때가 된 것이라 생각 한다. 특히 공공의 정원에 있어서 즉시 효과를 보면서 안정된 생태적 경관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한 시점이다. 이미 공공의 정원은 한국이 최고일 수 있다는 가능성은 청계천에서, 4대강에서 그리고 서울의 여러 공공정원에서 보았다.

이제 되돌아보고, 정리하고,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정원을 연출할 수 있는 역동성을 발견할 때가 된 것으로 보인다. 항상 한쪽으로 기울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법이다. 머리를 낮게 두고 공동 노력하는 만큼 시장이 성숙되어지는 것이다. ☺



인천 교육청옹벽 벽화수 이전

인천 남동구 논현 주공아파트 옹벽 녹화공사

벽화수 시공 현장은 그동안 현장가이드에서 여러번 다루었다. 2009년 남산 1호터널 공사부터 2011년 부산 수영구청 현장까지 콘크리트옹벽, 방음벽, 중앙분리대, 건축물 외벽, 옥상 등 거의 모든 벽면에 대한 시공 사례를 소개했다. 벽화수는 벽면 녹화 자재로서 어떤 형태나 제질에도 문제 없이 시공이 가능하고 어떤 구조물에도 벽면을 꽃과 식물로 덮어 도시 미관을 탈바꿈 시켜왔으며, 글씨나 문양 등을 자유자재로 표현을 했다. 또 원활한 물, 비배(양분)의 관리 및 사전 재배로 설치시 바로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이 점들은 벽화수가 가지는 자재로서의 우수성을 볼 수 있었으며 타 업체가 가지지 못한 야외에서의 활동에 대한 고민도 해결할 수 있었다. 벽화수의 이런 벽면 녹화 자재의 장점은 시공, 관리, 유지에서 앞서 말한 여러 장점에서 볼 수 있었다.

그러면 일질 기간 후 철거를 전체로 만들어 지는 행사를 꽃담이나 조형물의 경우를 제외하고 벽화수 시공중 한변중 고민을 해 보는 것이 있을 것이다. 벽면 녹화후 5년, 10년이 지났을때 자재의 내구력이 어떨지, 만일 철거시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의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벽화수의 시공은 2009년 남산 1호터널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전에 시공한 부천 무지개 고가도로의 중앙 분리대, 한평 나비축제장 같은 경우는 시험 및 샘플 시공의 의미가 있었다고 본다면 4년이 지난 남산 1호 터널을 어떻게 변해 있을까? 사진에서 보듯이 경관, 생육, 피복면에서 여전히 우수한 상태를 보여준다. 식물들엔 매트 블럭만 놓고 봐서도 처음 시공에서 비바람에 걸면이 많은것 외에는 거의 처음의 형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변에 소개할 현장은 사용한 벽화수 매트 블럭을 재활용한 현장이다.

2009년 인천시 교육청 옹벽에 설치된 벽화수를 건물 증설로 인해 시공되어 있는 옹벽을 철거한 후 보강하여 재시공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벽화수의 이전이 불가피 했다. 이전 장소로는 인천 남동구의 논현 주공아파트 앞 옹벽으로 정해졌으며 8월 중순 시공을 완료하였다. 인천 교육청 옹벽 철거후 시공까지는 약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있어 철거한 매트블럭을 이전 농장으로 이송 후 일부 고사한 것은 보식하고 너무 크게 자란 식물체는 커팅후 다시 현장으로 반입 하여 사용하였다. 철거한 면적보다 시공할 면적이 많아 초과분에 대한 자재는 추가 발주 만입 하였다. 벽화수는 390X390의 규격의 매트가 서로 밀착되어 식물의 뿌리가 차단되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식물의 생장이 좋을수록 결합·결속력이 더욱 강해지고 매트 자체의 강도가 더욱 올라 간다. 그래서 식물의 생육이 좋은 매트 는 재활용시 이동 및 설치 작업중에도 변형되거나 부서지는 등의 문제가 거의 없다 할 수 있다.

그럼 벽화수를 재활용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을까?

첫 번째로는 친환경적이라는 것이다. 도시의 건축물 및 콘크리트 옹벽, 옥상 등을 녹화 하는 이유는 여기서 다시 말하지 않아도 모두들 인지하고 있으리라 본다. 그 녹화자재 자체도 철거시 건축 폐기물로 분류 되며 폐기시 비용과 폐기물이 발생하게 된다. 경관과 환경을 같이 생각하지 않으면 녹화는 단순한 눈요기 거리 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벽화수의 원료가 피트모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잘게 잘라 일반 노지에 뿌리거나 경운을 하면 썩어 없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인 녹화자재의 경우에는 건축 폐기물로 처리 해야 한다.

두 번째는 비용의 절감이다. 인천 남동구 논현 주공 아파트의 경우 일반 시공가 대비해서 50%가 절감 되었다. 벽화수 고정용 각관과 인건비,

기타 비용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전의 경우처럼 철거와 시공의 일정이 차이가 날 경우 보식과 관리를 한 후 입고되어 비용은 절반으로 효과는 똑같이 누릴 수도 있다.

인천 남동구의 논현 주공아파트 옹벽 벽화수 시공은 1단지, 2단지 2군데로 나뉘어 면적으로 산정하면 약 360㎡ 정도가 된다. 도로와 바로 인접해 있고 인도로 오가는 유동인구가 있는 지역이다. 하얀 시멘트옹벽으로 어타 옹벽처럼 매우 삭막하고 차가운 느낌을 주고 있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2010년 벽화수로 시공하여 지금까지 경관적으로 시민들에게 만족을 주고 있는 중앙SH아파트 옹벽과 같이 주민들과 통행인들에게 불거리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제공하기 위하여 벽화수로 새단장을 하기로 한 것이다. 삼색조팝, 황금조팝, 금강애기귀리조 등 약 10여종을 적용하였고 봄, 여름, 가을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시공이 완료된 지금 아파트 옹벽이 하얀 시멘트의 모습에서 푸르름이 살아 숨쉬는 수직정원으로 바뀌었다. 아파트 주민을 비롯하여 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 모두 바뀐 경관에 만족하는 모습이었다. 일반적인 관리만 잘 해준다면 아름다운 옹벽 수직정원으로 매년 주민들 앞에 선을 보일 것이다.



수직 난간의 신기술 정원

포켓정원

설치가 쉽고 간편한 포켓 길이용 화분
부직포와 자재수를 접하는 다이내믹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제품

- ▶ 평면, 난간, 곡면 등 어떤 형태의 구조물에도 자유롭게 설치 가능
- ▶ 도시, 아파트 베란다, 실내 벽면 등에 가능
- ▶ 꽃 뿐만아니라 상추, 샷라, 토마토 등 재배 (가정원예용)

우리꽃 구입문의 : 031) 634-7990, 031) 634-0326-8



7월20일,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우리꽃 축제가 지식나눔 이라는 슬로건하에 이천연구소에서 열렸다. 우리꽃의 신개발 품종, 도시농업을 위한 가이드, 특화된 조경기법과 조경공간을 소개하는 자리와 새롭게 단장되어 열린 우리꽃벽화수 홈페이지와 도시농업 소평을 '가든조아'를 고객 여러분께 정식으로 선보이는 날이었다.

3000여명의 조경업계와 많은 분들이 참석한 이번 축제는 소개하는 각 분야별(로열티품종, 신식재기법, 벽화수, 도시농업, 시설현대화)로 우리꽃의 담당직원들이 직접 고객들에게 설명하고 끝이 신 품종과 도시농업 전시장과 야외 전시장을 참관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메인 행사장으로 쓰인 신실목욕장은 지열난방시스템으로 땅속의 지열로 여름에는 냉방을 겨울에는 보온을 하여 행사 당일 밖의 온도는 34도를 육박하였으나 행사장 내부는 25도로 쾌적한 가운데 행사를 시작하였다.



'우리꽃' 품종독립 선언

코레옵시스, 우리나라 최초의 야생화 로열티 수출 품종이다. 그동안 우리꽃이 열정을 다하여 연구, 개발한 코레옵시스 외에도 수많은 품종이 현재로 개발되어지고 있다. 이번 행사는 로열티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의 전환, 우리 자체적인 품종개발을 통한 품종독립 선언의 날이기도 하다.

우리꽃이 개발하여 그동안 지면을 통해서 많이 알려왔던 신품종을 한자리에 전시하여 고객들에게 안내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다양한 코레옵시스를 중심으로 황금색 조팝 '골드바', 패랭이시리즈,

부처꽃 탐, 가우라시리즈, 황금부처꽃, 황금자리공, 무늬카펫주름잎, 무늬별개미취, 애기노랑금계국 시리즈 등이 화분에 담겨 전시되었다. 위 품종중 다양한 색상의 코레옵시스와 황금자리공은 행사장의 디스플레이용으로 전시되어 눈길을 끌었다.

참여해준 많은 고객분들은 전시된 품목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고 앞으로 이러한 신개발품목들은 국내 뿐만아니라 국외로 로열티 수출되어 제2, 제3의 코레옵시스의 탄생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특화된 조경기법

외부현장에서는 우리꽃만의 특화된 조경기법을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먼저 미니골프장화단에는 혼합, 혼성식재화단, ARI가든, 그라스가든, 신소재관목류 등 다양한 조경식재기법과 소재들을 볼 수 있도록 마련했다. 그리고 모주발에서는 코레옵시스를 비롯, 가우라 등 300여종이 식물들이 시험재배되고 있는 경관이 펼쳐져있고 그 경계로 벽화수가 파티션형태로 설치되어 가까운 곳에서 직접 눈으로 수직정원 벽화수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것 중의 하나가 포켓가든이었다. 기존의 플라스틱의 용기가 아닌 포켓식으로 되어 다리난간 및 베란다에

우리꽃에는 우리꽃이 없었다...

10년 전 많은 이들은 우리꽃에는 우리꽃이 없다고 하였다. 물론 10년 전 우리꽃에는 우리꽃이 없었다. 조경용 지피식물로 적합한 수많은 외국품종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그 때부터 우리꽃을 피우기 위해 많은 연구를 하고 있었다. 그 결과로 2012년 7월 20일 우리꽃은 품종 독립선언을 하게 되었다.

상록잔디패랭이를 필두로 하여 눈붉은썩레 외 61

종이 출원완료 및 시험재배 보호결정이 이루어졌으며 2010년부터 일본에 코레옵시스를 우리나라 최초로 로열티 받고 수출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하지만 아직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피지 않았다. 우리꽃은 앞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다.

사진으로 보는 우리꽃 축제



코레옵시스 품종을 비롯하여 300여품종의 식물들이 식재되어 있는 모주발 전경



로열티 수출품종 코레옵시스 우리드림시리즈



다양한 색근초로 조성된 미니골프장 화단



도시농업 전시장에 선보인 각종 도시농업용 자재



행사장 내부에 황금자리공으로 디스플레이하고 있는 모습



전시된 신개발 품종들



도시농업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는 참석자들



소형다리 난간에 설치된 포켓가든



다양한 코레옵시스에 대한 소비자의 기호도 조사



행사 참석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포켓가든



야생화 최초 로열티 수출

코레옵시스

▶ 가을 국화대용으로 최적의 품종



▲ 7치(피터) 3치(포드) 두종 각각 출하한다.



▲ 행사용으로 디스플레이인 코레옵시스. 가을에 국화대용으로 최적의 소재이다.



▲ 코레옵시스로 연출된 원형화분



▲ 포켓가든의 위쪽식물로 연출



▲ 화단에 군식되어진 코레옵시스

품종독립선언!! 이번 우리꽃 지식나눔축제를 통해서 우리꽃이 개발한 신개발 품종을 선보였다. 그중에서 제일 선두에서 진두지휘한 품종이 코레옵시스이다. 제품의 우수성은 국내 야생화 최초 로열티수출 품목이라는 점에서 입증되었고 다양한 코레옵시스 품종을 확보하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 전방이 뛰어난 품종군이다. 이번 코레옵시스에는 일본, 미국, 유럽 등 일명 화훼선진국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 그 우수성이 이미 증명된 코레옵시스의 생태적 특징과 그 이용성, 관리방법을 소개함으로써 국내 조경현장의 적용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코레옵시스속(Coreopsis spp.) 우리드림시리즈는 우리꽃이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한 국화과식물이다. 초형은 대형볼형태로 생육이 매우 강건해 이른 봄 1포기만 심어도 개화가 시작되는 5월말이면 적경 폭 60cm, 높이 40~50cm 정도의 둥근 볼형의 초형을 이루게 된다. 화색은 고급스러운 하양, 노랑, 주황, 빨강, 분홍으로 다양하다. 5월말부터 가을까지 연속개화하는 장기간화 품종이다. 이런 특징은 조경현장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는데 그 이용성에 대해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초형이 좋아 화단식재에 뿐만 아니라 화분에 단독식재에도 유리하다. 우선 일반 화단에 군식용으로 좋다. 한 색상으로 식재하거나 면적이 넓은 경우 여러색상으로 경계를 주어 배치하면 매우 아름답고 화려한 경관이 연출된다. 또한 색상이 서로 다른 3품종이 혼합되어진 포트 또는 화분제품도 출시되어 자연스럽게 색상이 혼합된 경관을 연출하고자 한다면 혼합제품을 구매하여 식재하면 된다. 또한 숙근초화단에 혼합식재시 양쪽식물로 포인트 식물로 활용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거리원형화분이나 이번 우리꽃축제에서 큰 인기를 모았던 포켓가든에도 알맞은 최적의 소재이다. 관공식에서는 거리원형화분을 도시에 배치하여 1년에 2~3회정도 꽃을 교체해준다. 우리드림시리즈는 초장이 기존 코레옵시스속 보다 작아 쓰러짐이 없어 거리화분용 볼륨감 연출 식물로도 적합하다. 원형화분안에 군식하거나 테두리용으로 이용하면 안성맞춤이다. 포켓가든에는 아래쪽으로는 웨이브레치니아, 한련화 등 아래로 늘어지는 식물을 심어주고 위쪽식물로 제라늄, 가우라 등과 더불어 코레옵시스를 식재해주면 좋다. 행사 디스플레이용으로 좋은데 커밍후 3주뒤면 다시 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행사일정에 맞추어서 개화관리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특히 가을꽃으로 행사 또는 화단에 적용하는 것은 천편일률적으로 국화가 대부분인데 가을에 국화대용으로 할 수 있는 최적의 소재이다. 가을이면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것이 국화이기 때문에 코레옵시스를 국화대용으로 적용한다면 신선한 느낌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사용되는 곳에 따라 4치포트 또는 7치화분을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다.

관리방법은 진정을 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꽃을 볼 수 있지만 많은 꽃이 한꺼번에 개화하고 지면서 다시 개화하므로 꽃이 만개 후 지기시작할 때 꽃대를 잘라주면 약 2~3주후 다시 개화하는 특징이 있다. 이때 커밍후 충분히 비료를 주어야 한꺼번에 많은 꽃을 다시 볼 수 있다. 코레옵시스는 햇빛을 매우 좋아하는 호광성식물로 통기성과 보비력이 좋은 토양이 좋고 장기개화형 식물이기 때문에 퇴비를 많이 하고 추비를 지속적으로 주는 것이 더 좋고 건강한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다. 이미 코레옵시스속 식물들은 한국 정서에 알맞은 식물로 자리잡고 있다.



추파용 혼합종 타입



▲ 캘리포니아양귀비 노랑, 리얼 몸종이 추가 되어 혼합된 타입



▲ 잉글랜드양귀비 적색품종이 추가 되어 수레국화, 안개초 등이 혼합된 타입



▲ 브라질의 수레국화가 추가 되어 잉글랜드양귀비, 안개초 등이 혼합된 타입

봄꽃 축제를 위한 소재하면 쉽게 떠올리는 단어가 '양귀비'이다. 그만큼 이제 양귀비는 일반화 되어 전국적으로 쉽게 이용하는 소재가 되었다. 하지만 불과 7~8년전만 해도 생소한 아니, 사용해서는 안되는, 사회적으로 금기시 되었던 소재였다. '우리넷' 지면을 통해서도 여러번 소개했지만 세계적으로 70여품종의 양귀비 중 2품종만 사용이 금지되었고 그 외 품종은 화훼용으로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한 것이다. '우리꽃'은 양귀비의 뛰어난 경관적 효과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다양한 양귀비 종류(잉글랜드양귀비, 캘리포니아 양귀비, 아이슬란드양귀비, 쥐눈양귀비)와 안개초, 영채, 수레국화, 끈끈이대나물 등 이년생(Biennial) 추파용종자를 동시에 봄축제용 소재로 활용해 왔다. '우리꽃'은 포천부식물원의 양귀비축제를 시작으로 파주심학산 돌꽃이 축제, 함양 플로리아

꽃축제, 용인 내동마을 꽃축제, 영광 꽃누리 축제, 한평엑스포 등 추파용 종자를 이용하여 직접 경관을 연출하거나 효과적인 행사를 위한 컨설팅 해주며 전국적으로 종자를 보급해왔다. 또한 중국의 화선자는 봄이면 웨딩촬영의 최고 명소로 손꼽힐 정도로 아름다운 경관을 선보이고 있다.

조금 있으면 내년 봄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파용 종자를 선택, 파종할 시기가 다가왔다. 이번호에서는 '우리꽃'이 전문가로서 다시한번 경관적으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추파용 종자의 이용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자 한다.

다양한 소재의 선택과 적용

처음에도 서술했듯이 양귀비는 볼꽃 소재용으로 빼놓을 수 없는 소재이다. 다시말하면 기본적으로 양귀비는 반드시 사용하기 때문에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재의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색상별로 다양함을 주기 위해서 기존의 캘리포니아양귀비는 노랑색이었지만 흰색, 보라색, 자주색 등을 이용하면 더 새로운 모습을 줄 수 있다. 잉글랜드양귀비도 적색의 강렬함과 대비될 수 있는 분홍계통의 은은한 색을 서로 다른 장소에 적용하거나 순백의 안개초를 적색양귀비의 테두리에 적용하여 더욱더 적색을 돋보이게 할 수도 있다. 또한 개화시기를 폭넓게 가지기 위해서 먼저 개화하는 유채, 영채 등을 같이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처럼 1~2종류 보다는 다양한 소재를 한정조건과 잘 어울리게 적용하는 것이 좋다.

차별화된 디자인

다양한 추파용종자를 이용하여 주변경관과 어우러지는 디자인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지, 시냇물 등 원장의 여건과 시민들의 이동 동선을 감안하여 파종지역별로 꽃의 색감이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품목을 선택하여 파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좀 더 차별화된 경관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단일파종 뿐만 아니라 3~5종을 혼합해서 파종해주면 파스텔톤의 고급스러운 색상을 연출할 수 있다.

혼합파종

다양한 추파용 종자를 적절하게 혼합해주면 더욱더 아름다운 경관연출이 가능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혼합품목의 선택과 비율이다. 혼합하여 파종한다는 것은 품목간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므로 품목의 선택이 중요하고 또한 품목간에도 주소재와 부소재가 있고 종자의 발아율, 립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혼합하는 비율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혼합품목의 선택과 혼합비율은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꽃'은 품목간의 조화와 생육적인 비율을 감안하여 미리 혼합된 다양한 혼합종 세트를 제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적절한 관리

모든 작물이 그렇듯이 추파용 종자도 시기적으로 적절한 관리(시비, 제초, 배수 등)이 이루어져야 좋은 꽃을 볼 수 있고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할 수 있다. 먼저 가을에 파종하기 전 토리터 작업을 할 때 충분히 기비를 하고 물빠짐이 좋도록 고랑을 깊게 해준다. 이듬해 3월10일을 전후해서 1차 추비를 하고 4월초순경 잡초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주로 바랭이 등 화분과 잡초가 이 시기에 먼저 나오기 때문에 잘 관찰하다가 잎이 3~4엽 정도 되었을 때 해분과만 선택적으로 고사시키는 제초제를 구입하여 살포해준다. 4월 20일경 생육상태를 보고 2차 추비를 하고 잎이 넓은 광엽잡초가 많이 발생 했으면 손제초를 해주는 것이 좋다.



▲ 아이슬란드양귀비



▲ 잉글랜드양귀비 분홍



▲ 잉글랜드양귀비 적색



▲ 캘리포니아양귀비 노랑



▲ 캘리포니아양귀비 보라



▲ 캘리포니아양귀비 하양

내년에 출시되는 우리꽃 신품종

현재 국내의 소비자 기호 수준은 선진국의 수준을 따라가고 있으며, 시장은 유행과 기호가 다변하고 있다. 끊임없이 새로운 품종을 시장에 내놓지 못할 경우 국내 시장은 해외 의존도가 점점 더 높아질 수 밖에 없다. 해외 품종 로얄티 지불액 및 수입량이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는 현실이다. 국내 기술로 경쟁력 있는 우수 품종을 개발하는 것은 수출 및 내수 증대를 통해 농가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화훼류 신품종 개발은 대부분 정부주도하에 수입대체 품종개발 또는 대품목군 위주로 이루어지며, 민간 개발이 미약하여 미래 시장성이 있는 국내 개발 품종이 절대 부족한 상황이다. 21세기 현재 세계는 하나의 정보 체계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신품종의 로얄티 거래가 보편화되고 있고 국가 경쟁력의 바로미터가 되었다. 이런 현실에서 국내 기술에 의한 우수한 신품종을 개발하여 로얄티를 수출하는 것은 한국 농민의 숙원이며 자존심 회복의 기회이다. 또한 화훼 조정 산업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이자 목표이다. 이에 “우리꽃”은 그동안 국제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고, 소비자 기호와 조정 현장에 알맞은 우수한 신품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십년간 잔디패랭이, 상록잔디패랭이, 눈붉은썰레 등 ‘우리꽃’의 신품종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 꾸준히 시장에서 사랑받는 품목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드림이 첫 번째 로얄티 수출 품목이 되어 세계 시장에 발을 내딛었다. 우리드림의 로얄티 수출을 시작으로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 시장 경제로 적극적으로 진입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꽃’에서는 61개 품종이 품종보호출원 및 등록되었으며, 현재에도 더 우수한 품종을 개발하고자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COREOPSIS ROSEA* 속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 품종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코너에서는 현재 개발되어진 품종 중에서 내년에 출시되는 ‘우리꽃’ 신품종을 미리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코레옵시스 시리즈

코레옵시스 우리드림시리즈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되고 있다. 내년부터 화형이 리본형태를 이루고 있는 리본시리즈, 키가작은 미니꽃시리즈, 꽃이 작고 다화성이며 초형이 아름다운 텀카멜시리즈, 두상화가 노랑색을 띄며 관상가치가 있는 그래스마일시리즈, 꽃잎이 얇은 형태를 띠는 핀힐시리즈, 그리고 스페셜시리즈 등 다양한 코레옵시스 시리즈가 출시될 예정이다.



가우라 시리즈

강한 생육과 아름다운 화색을 가지고 있고 6월부터 가을까지 장기간개화한다. 물빠짐이 좋은 비옥한 토양을 선호하고 건조한 곳, 약간의 반음지에서도 잘 자란다. 일부 내한성이 약한 품종의 경우 겨울 보온이 필요하다. 현재는 개발된 가우라 품종 중 ‘베이비’가 활발하게 판매되고 있으며 잎의 중앙 및 가장자리에 무늬가 있고 키가 작은 품종으로 핑크스마일, 그린스마일, 옐로우라임 등이 내년에 출시될 예정이다.



부처꽃 ‘황금’

현재 부처꽃 품종 중 화사가 크고 길며, 꽃의 수가 많고 크기가 커서 일반 부처꽃보다 효과적인 조정연출 가능한 부처꽃 ‘탐’이 출시되어 판매되고 있고 그 뒤를 이어 전체 포기가 황금색을 띄고 있어 관상가치가 매우 뛰어난 부처꽃 ‘황금’이 내년에 출시될 예정이다. 일반 부처꽃과 마찬가지로 생육이 강건해 특별히 생육환경을 가리지 않으며 큰무리를 이루면 화려하고 효과적이다.



조팝 ‘골든바’

임 전체적으로 황금색을 띄는 조팝으로 이름 붙 수천개의 꽃이 빽빽이 내린 눈처럼 피고 지면 햇살같은 황금색 임이 자리난다. 생육이 강건해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고 토양을 특별히 가리지 않는다. 생육타라, 경계용, 포인트용으로 고급스러운 연출이 가능하고 오열에 강해 도로변 피복지 혹은 중앙 분리대 군식에 적용하면 효과적이다.



눈붉은썰레

1년에 15미터를 자라는 최상의 울벽녹화식물로 건조한 토양에서도 잘 견디지만 유기질 비료를 많이 사용하면 빠른 차폐를 유도할 수 있다. 포도송이와 같은 분홍색 꽃차례가 30cm 길이 정도로 미디엄다 풍성하게 자라고 눈붉은썰레에 비해 약 10일정도 먼저 개화한다.



애기노랑금계국 시리즈

키가 작고 화수가 많으며 6월부터 10월까지 장기간개화한다. 노랑색으로 한정된 기존의 화색군을 맑은 노랑색, 주황색 등으로 넓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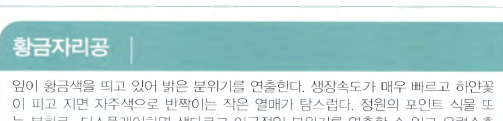
패랭이 시리즈

상록잔디패랭이에 이어 새롭게 선보이는 패랭이시리즈는 꽃이 아름답고 잎의 질감이 뛰어나다. 건조에 매우 강하고 조경용 및 빗화용으로도 매우 좋은 소재이다.



무늬카펫주름임

잎에 노랑색 무늬가 있는 주름임 품종으로 빠른 피복과 재생력이 뛰어나다. 물기가 적당히 있는 곳을 좋아하고 분화용이나 하루 디스플레이용으로 이용하면 좋다.



황금자리공

잎이 황금색을 띄고 있어 밝은 분위기를 연출한다. 생장속도가 매우 빠르고 하얀꽃이 피고 지면 자주색으로 변색하는 작은 열매가 탐스럽다. 정원의 포인트 식물 또는 분화로 디스플레이하면 색다르고 이국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고 유럽수출용으로 유명한 품종이다.



안내

● 우리꽃의 신품종을 상업적으로 생산, 판매하고자 하는 농민은 반드시 우리꽃과 계약 후 재배해야 하며 우리꽃이 제공하는 인내캐탈을 부착하여 출하해야 합니다.

● 신품종들은 품종보호등록 또는 출원되어 있어 무단으로 증식, 복제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품종보호권 전용실시권 또는 임시보호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지난호에서 '흰꽃을 피우는 품종들' 적색대변명(白)을 소개했다. 이번호에서는 화색이 분홍색인 품종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원식물을 소개하고자 한다. 소비자의 색상 선호도에 대한 기호도 다양하므로 미리 색상별로 품종을 분류해 놓으면 식재현장의 패턴과 여건에 따라 품종을 적용할 때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참고로 7월 20일 새롭게 오픈한 '우리꽃' 홈페이지는 품목에 대한 검색기능이 강화되었는데 꽃의 색상별로 검색이 가능할뿐만 아니라 생활형, 높이, 화기, 음양지, 건조도, 상록성, 내한성, 이용성 등 다양하게 검색이 가능하여 설계 또는 시공시 품종을 적용할 때 현실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혼식용

길을 걷다가 도로변의 화단이나 가로화분에 식재되어진 꽃의 색감이 너무 강렬하면 눈에 바로 띄지만 오래지않아 싫증을 느끼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오히려 흰색, 분홍색 등 연한색의 계열을 잘 배색했을 때 고급스러우면서도 오랫동안 감상해도 질리지 않게 된다. 혼합식재시에도 분홍색계열로 볼부터 가을까지 연출한다면 색다른 느낌을 줄 수 있고 분홍색꽃을 주소재로 흰색꽃을 부소재로 이용해도 좋다. 이때는 서로 색상을 비율에 맞게 혼합하여 식재하거나 좌우측으로 분홍색에서 점점 흰색으로 화색이 자연스럽게 바뀌도록 품종을 배치하는 것도 장관적으로 또다른 느낌을 연출할 수 있다. 또한 중간중간에 강렬한 적색의 품종을 포인트식물로 식재해도 좋다. 그리고 반드시 주의할 것은 품종간에 서로 침범이 되지 않고 원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넉넉(땅속줄기)식물은 배제하도록 한다.



▲가우라 베이비 ▲거북머리 핑크 ▲고리볼 로켓 ▲고리볼 핑크 ▲꽃배합 ▲꽃잔디 레드킹 ▲너도얼레지 ▲모나디 ▲부처꽃집 ▲비단동자 ▲상록잔디패랭이 ▲아스타 춘추 ▲아스타 벨로우 ▲아스틸레 드림 ▲에키나 ▲왕상록패랭이 연지 ▲지피속근코스모스 ▲후룩스 불맞이 ▲후룩스 분홍심 ▲가우라베이비



군식용

일반적으로 군식은 장기개화형이거나 생육이 강한 품종이 유리하다. 그리고 주로 도로변의 폭이 좁은 곳에 군식하는 경우가 많아 어느정도 키가 큰 식물이 사람들의 시선을 감았했을 때 유리하다. 분홍색으로 도로변 등에 군식에 좋은 식물은 후룩스 분홍심, 거북머리, 가우라 베이비, 아스타 벨로우, 에키나 등이 있다. 또한 이러한 품종을 군식하면서 중간중간에 무늬역새 등 대형그라스 품종을 포인트식재하거나 꽃배합을 혼성식재하면 더욱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ARI가든용

ARI가든에는 세덤류, 그라스류 등 약 70여종의 다양한 식물이 적용되어진다. 또한 다양한 색상의 꽃들을 한 현장에서 볼 수가 있다. ARI가든 적용식물 중 분홍색꽃을 피우는 수종을 선별하여 정리해 보았고 식육에지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분홍색꽃 품종도 사진과 함께 소개하여 현장적용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너도얼레지 ▲물장미 핑크 ▲분홍조팝 ▲비단너도부추 ▲비단동자 ▲상록잔디패랭이 ▲왕상록패랭이 연지 ▲파란알뜰의비름 ▲패랭이 핑퐁

봄을 알리는 최고의 소재

추석구근

가을식재, 추석구근 주문을 받습니다.

수선화 4종

튤립 10종

구입문의 : 031) 634-7990, 031) 634-0326~8

도시농업 제대로 하기-4

가을 텃밭농사의 대표, 김장농사짓기

텃밭보급소 편집장 | 김 지 숙 |

귀농운동본부 텃밭보급소에서 매내는 <텃밭신문>을 만들고, 텃밭농사를 하면서 텃밭농부들을 돕는 활동을 함께 하고 있다.

가을 텃밭농사는 뭐니뭐니해도 김장농사다. 한겨울 먹을 김장거리를 조달하는 일이나 큰 과업일 수밖에. 과일에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 농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김장농사는 8월중순부터 서둘러야 한다.

김장채소부터 잎채소까지 고루 심자

김장거리를 다 자급하기는 어렵겠지만, 배추, 무, 갓, 쪽파 등은 텃밭에서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자급해도 훌륭한 김장비 절약에, 내손으로 키운 안전하고(비료와 농약을 치지 않는다) 맛난 김장거리 확보에 보람만땅이다. 여기에 김장 전에 먹을 총각김치나 일부김치거리도 심어 먹을 수 있다. 배추보다 자라는 기간이 훨씬 짧은 알타리무나 일부 파이는 중간에 거둬 먹을 수 있다. 또 봄부터 여름까지 신나게 먹었던 상추며 쌈채소들도 다양하게 길러 먹을 수 있다.

곧 가을에 심는 텃밭의 채소들은 봄에 길러먹는 것들과 크게 다를 바 없다. 봄이나 가을이나 기온이 비슷한 때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봄은 점점 더워지는 때라 온기가 길게 가고 가을은 점점 추워지는 때라 온기가 짧게 간다는 차이만 있다. 그러나 가을에도 봄만큼 텃밭의 영화는 올 수 있다. 그러나 10월말 서리가 내릴 때쯤이면 끝나는 두 달여의 짧은 영화!

물론 이쯤까지 살아남아 추위를 견디는 녀석들도 있다. 배추와 뿌리채소는 무 종류들은 11월말 영화의 추위가 올 무렵까지도 텃밭을 지킨다.



▲ 배추꽃



▲ 무꽃



▲ 갓꽃

※배추와 무, 갓 등은 모두 십자화과 작물로 꽃이 닮았다.

배추는 모종으로 부는 씨로!

8월중순까지는 거름을 섞어 김장밭을 준비하도록 한다. 거름은 1평당 퇴비 3~5킬로그램 넣으면 알맞다. 크게 키울 육상에 너무 거름을 많이 넣지 않도록 하자. 거름을 많이 넣는다고 다 배추한테로 가는 것도 아니다.

김장밭 마련 후 1주일에서 열흘 후, 8월 중하순에는 배추 모종을 옮겨 심고 부씨를 뿌린다. 그리고 1~2주씩 순서대로 알타리무, 갓, 쪽파 등을 심되 늦어도 9월 초순까지는 김장채소 옮겨심기와 파종은 마무리해야 한다. 이후에는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기 때문이다. 텃밭을 차을 할 때는 열매채소는 물론이요, 상추나 갓가지 쌈채소까지

모든 모종으로 심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모종으로 심어야 좋은 열매성 열매채소(고추, 가지, 토마토 등) 같은 작물들을 빼고는 대체로 씨로 심는 편이 낫다. 경제적이고 더 오래 키워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쌈채소를 씨로 심으면 어린 잎들을 중간중간 솟아먹는 제미도 좋고 오래도록 잎을 따먹을 수 있다. 모종으로 심는 건 이미 키워서 심는 것이므로 잎을 따먹는 시기도 짧아진다.

갓이나 무도 마찬가지로 씨로 심는다. 특히 무나 순무, 당근 등 뿌리채소들은 모종으로 옮겨심으면 뿌리가 갈려져 좋지 않다. 알타리무나 열무도 마찬가지!

씨로 심는 것들은 씨를 한두 알씩 떨어트리며 줄뿌림을 하면 된다. 줄 간격은 작물의 크기에 따라 큰놈은 크게 작은 것은 작게 벌려 준다.

그러나 김장의 주역 배추는 모종으로 많이 심는다. 파종기가 8월 장마와 겹치는 배추는 씨로 뿌리면 빗물에 떠내려가거나 초기에 잘 자라지 못해 김장배추로 크게 키우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모종과 함께 씨를 뿌려두는 것도 좋다. 김장거리로 모종을 심고, 여분

으로 씨를 뿌려 중간중간 뽑아 얼갈이배추처럼 먹을 수 있게 때문이다.

배추 모종을 옮겨심을 때는 간격을 사방으로 30~40cm는 띄어준다. 두둑이 80cm라면 한 줄에 3포기를 심는다. 물이 잘 빠지지 않는 밭이라면 높은 두둑을 만든다.

쪽파는 씨가 아니라 쪽파 밑둥인 씨쪽파로 심는다. 심을 때는 간격을 한 주먹씩만 띄어주며 흙 속으로 꼭꼭 찔러넣으면 된다.

자라는 동안 웃거름을 챙겨주는 배려도

배추나 무는 석달 이상 밭에서 키워 먹는 채소다. 적당한 거름을 주고 난 다음에도 어느 정도 자라는 웃거름을 주는 배려가 필요하다. 그러나 웃거름으로 따로 퇴비를 구입할 필요는 없다. 쓰다 남은 거름이 있으면 쓰고, 또 없어도 무방하다. 연재는 마련할 수 있는 자가거름, 오줌거름이 있기 때문이다.

김장농사를 하고 나서 바로 해야 할 일은 바로 오줌거름을 만드는 일이다. 공짜로 무한정 얻을 수 있고, 만들기도 누워서 떡먹기인 오줌거름은 잎채소에 질소질을 공급하는 귀중한 비료다. 오줌을 펄트

방에 받아 마개를 꼭 막고 열흘쯤 두면 발효(오줌은 통과해 달리, 공기가 통하지 않게 헝기발효를 한다)가 된다. 이 발효된 거름을 물에 5배 이상 희석해 물뿌리개로 간간히 뿌려주면 김장거리 농사는 걱정 없다. 9월 중순쯤 지나 본격적으로 자라기 시작할 때 2주에 한 번씩쯤 뿌려준다.

오줌거름을 주면 물을 따로 줄 필요도 없다. 물을 많이 주고 키운 배추는 통은 크나 단맛이 떨어지고 무르다. 아주 가물지만 않으면 밭물로 카우도록 하자.

벌레 입도 배추를 찾는다

특히 연하고 달달한 배춧잎을 좋아하기로는 벌레들도 매한가지다. 점점이 파란통의 배추벌레(배추흰나비 애벌레)나 배춧잎을 갉아먹는 달팽이뿐 아니라, 배추통 전체를 시기렇게 점령하는 진딧물, 벼룩잎벌레, 무얼벌레들은 배추를 노린다.

내 먹거리에도 농약으로 벌레를 잡을 수가 없는 법. 벌레를 물리칠 방법으로 권한 만한 몇 가지는 이렇다. 우선, 향이 강한 쪽파나 갓, 부추 따위를 배추와 무 사이사이 심어 벌레들이 절집을 하게 한다. 둘째로, 물을 어느 정도 놔두어 벌레들이 작물쪽으로만 모이지 않도록 한다. 셋째, 배추벌레, 벼룩잎벌레, 달팽이 같이 집히는 벌레들은 나무젓가락이나 핀셋으로 잡아준다. 넷째, 고약한 냄새가 나는 목초액(나무를 태운 연기를 액화시킨 물, 목초액은 식초와 마찬가지로

살균, 살충 효과를 낸다.)을 뿌려 벌레들이 기피하도록 한다. 목초액은 물에 10배(100배로 희석) 타서 2~3일에 한 번씩 뿌린다. 다섯째, 진딧물이 모여든 작물에는 끈끈한 마요네즈 희석액(200배율 희석)을 자주 뿌려 진딧물 습동을 조여 제압한다.

하나 진파 포식자는 따로 있다. 바로 칠성무당벌레. 등판에 점이 7개인 칠성무당벌레는 진딧물들을 포식하는 육식성 벌레. 텃밭에 나타나는 칠성무당벌레를 잘 보존하고 아껴 진딧물을 퇴치하도록 하자. 사정이 여의지 않더라도 초식성 생명이 조금씩 잡아먹는 초목이들은 화학비료와 농약에 찌든 먹거리에는 덜 바 없는 깨끗한 것이요, 또 조금으로 또 조금씩 씹어내는 절차가 있으니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 ① 진딧물 포식자 칠성무당벌레
- ② 무얼벌레
- ③ 배추벌레
- ④ 벼룩잎벌레
- ⑤ 진딧물

※ 사진 _ 박원만 <텃밭백과>

팜카밀레와 함께한 8년

팜 카밀레 대표 박정철

팜 카밀레

충남 태안 남면에 위치한 1만2,000평규모의 국내 최대 허브관광농원으로서 농원(Farm)이라는 영문의 이름과 허브를 대표하는 카밀레(Kamille)와의 합성어로 말그대로 허브를 가꾸고 향기를 전달하는 농원이라는 뜻이다. 삼과 온실위주의 기존의 허브농장과는 차별화된 전막, 즉 허브농원이 추구하고자하는 관상적가치 뿐만 아니라 원예적가치, 생활적가치를 병행하는 고객 모두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세상에 꽃을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 사람들은 왜 꽃을 좋아할까?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는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꽃을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 문득 이런 화두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까지 꽃은 커녕 풀 한 포기도 심어 본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의문을 갖고 아무런 준비 없이 무모하게 시작한 팜 카밀레를 만들어 온지 8년이 되었습니다. 2년이면 완성 되리란던 처음 목표는 이제 이룰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알니다. 꽃은 이제 목표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할 동반자입니다. 꽃을 가꾸기 위해서는 땅을 알아야 하고 땅과 환경에 맞는 종을 잘 골라야합니다. 땅을 아는 시간이 5년은 걸린 것 같습니다. 땅을 알고 땅을 만들어 꽃을 심으니 장마도 잘 이겨내고 가뭄에도 강합니다. 이제 꽃의 아름다움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들은 활짝 핀 꽃만을 탐하고 아름답다고 하지만 꽃을 피우기까지의 과정을 알면 꽃의 아름다움은 그 꽃의 뿌리와 줄기와 잎의 일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꽃을 피우기 전 이라도 잘 자란 식물은 그 꽃의 아름다움을 미리 상상 할 수 있습니다. 바와 바람에 찢길 지라도 그 과정을 견딘 꽃은 위대합니다. 생명이니까요....

꽃이 아름다운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만들 수 없는 색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닐런지요. 아무리 전체 화가라 해도 자연의 칼라를 찾아갈뿐 꽃이 주는 칼라를 완벽 하게 표현 할 수는 없겠조. 어떤 꽃이든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완벽한 균형과 설계에 놀랍니다. 꽃은 소리 내지 않고서 곤충과 동물, 사람을 불러 모으는 힘이 있습니다. 무수한 꽃말과 전설처럼 영혼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꽃은 우리에게 감성을 주지요. 미학의 시발이 되고 음악과 미술 철학과 시가 되지요. 사랑의 연결고리가 되기도 하고요.

팜 카밀레를 가꾸어 온 8년 동안 물리적 공간 단 한 번도 같은 계절은 없었습니다. 언제나 계절은 새롭고 똑같은 땅에서 똑같은 꽃이

핀 적이 없습니다. 꽃을 가꾸는 행위 자체는 힘이 들지만 결코 권태를 주진 않습니다. 늘 하루하루가 새롭기 때문이죠. 저희는 자주 물을 주거나 피비를 충분히 넘기나 제초제 살충제를 주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스스로 생존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고 그렇게 자라도록 유도합니다. 다양한 종을 혼식하여 식재합니다. 흔히 하는 꽃 박람회로 익숙한 방문자는 우리가 추구하는 이러한 가치를 알아 주지 않지만 저희는 타협할 생각이 없습니다.

세 개의 조그만 연못을 만들었습니다. 망수 하지 않고 흙과 돌만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송사리가 생기고 미꾸라지도 나타나고 우렁이 조개도 생겼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왔는지 신기한 일입니다. 물고기들의 활발한 먹이 활동으로 늘 황토 빛으로 흐른 흙탕물이지만 우리는 황금연못이라 부릅니다. 물속 생명들의 심 없는 먹이 활동으로 늘 흐린 연못은 서리가 내리면 비로소 맑아집니다. 물고기들은 물속 깊은 곳에 내려가 인공의 저울을 보냅니다. 속근초들이 땅속에서 시린 저울을 보내듯이 말입니다.

나이를 먹어 감에 따라 여러고 작은 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어렸을적 보이지 않았던 풀들도 아름답습니다. 잡초라고 하지만 다들 저마다의 이름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유익 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농원에서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만 당나귀와 양들을 기르면서 그 잡초가 짐승의 먹이가 되고 짐승의 배설물이 꽃들의 양분이 되어줌으로서 잡초들도 좋아할 수 있는 상생도 다시 보여 줍니다. 식물들도 어떤 좋은 남의 영역을 계속해서 탐하고 어떤 좋은 스스로 번식을 하지 못해 우리가 파종하고 삼목하여 번식을 하기도 합니다. 정원을 가꾼다는 것은 이러한 말란스를 유지 시키고 개선하는 행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8년이 지난 지금에야 알 수 있습니다.

하늘 위에 공원을 짓다!

뉴욕 하이라인 파크



지상 위 10미터에 떠 있는 하이라인파크는 뉴욕 맨하튼 남서부권에 위치한 22개의 블록 미드팩트 디스트릭트의 켈시에 걸쳐있는 역사적인 고가 철도 구조물에 세워진 공원이다.

공원 내에는 핸드크래프트 체험 이벤트, 하이라인 투어, 영화관람 등 매일 매일 다채로운 이벤트가 진행되며, 본인의 예술작품을 판매하는 사람들, 음료수를 파는 사람들 그리고 여유롭게 산책하는 시민들과 관광객으로 생기가 넘친다.



하이라인의 자연생태를 직접 체험하는 어린이 프로그램 / 별과 달을 관찰하는 여름 이벤트 / 하이라인 야경

하지만, 150년 전 이 지역은 땅 위로 다니는 산업용 철도와 마차들이 마구 뒤섞여 잦은 사고로 얼룩진 이 동네를 '죽음의 예비'라고 불렀을 정도였다. 너무 심한 교통 혼잡과 빈번한 인명사고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물류수송을 위해 1930년대 이 동네 공장 건물들의 3층 높이 한가운데를 뚫고 다니며 화물을 수송하는 철도가 건설되었다. 하지만 1950년대 이후 교통이 발달하고, 커다란 수송트럭이 주요 운송수단으로 발달하면서 이 하이라인의 일부가 허물어지기 시작했고 1980년에 이 철도는 완전히 중지됐다. 그리고 20여년 후,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흉물로 전락한 이 하이라인은 완전히 철거될 위기에 처해졌다. 특히 하이라인 고가철도 아래 땅을 사고, 새롭거나 또는 기존 건물들을 통해 발생된 많은 이익을 염두에 둔 사람들은 철거를 주장했고, 시는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20여년간 버려진 하이라인의 철도 위에는 수많은 풀과 나무가 자생하고 있었으며, 이 철근 덩어리와 자연의 묘한 조합을 뉴욕시가 보존해야 할

역사적 도시구조물로 만들려는 운동이 생겨났다. 수년에 걸친 보존론자들과 개발론자들의 팽팽한 대립은 뉴욕시민의 폭넓은 지지로 결국 소송에서 승소했고, 현재 아름다운 하이라인 파크로 2009년 다시 태어났다. 현재 이 공원은 뉴욕시의 소유이며 하이라인의 보존을 위해 1999년도 결성된 '프랜즈오브하이라인'이라는 단체에 의해 유지 운영되고 있다.

하이라인의 조경은 열차가 멈추고 25년간 철도에 날아 들어온 씨앗들에 의해 조성된 경관에서 영감을 받았다. 210종의 다년생 숙근초, 그라스류, 관목 등이 내한성, 적응성, 다양성지속성, 그리고 계절적인 변화, 질감과 색의 조화 그리고 자생종에 초점을 맞추어 종이 선별되었다. 철도에서 자생하던 많은 종들을 그대로 공원 조경에 이용하였다. 각 구간은 설계 초기단계에서 시행한 식생현황 조사결과 나타난 식물 생태군 또는 다른 형태적 특징에 따라 제목을 붙였다. 긴 거리를 통해 연장된 만큼 구간마다의 미적 주제에 따라 식생의 구성형태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된 것이다.

하이라인파크는 자체경관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하이라인 파크에서 보이는 멋진 뉴욕시의 풍경으로 인해 더욱 사랑받고 있다. 철거를 앞둔 도시의 흉물스러운 폐철도 구조물이 맨하탄전경, 자유의 여신상, 허드슨 강의 멋진 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문화 컨테이너로 변신한 것이다.

오직 인간의 편의에 의해 생겨나고 다시 허물어지는 삭막한 도시 구조물을 따뜻한 영혼이 담긴 도시민의 동반자로 만들어 준 작은 풀씨들과 풀씨들의 존재와 소리에 귀 기울여준 뉴욕시민의 마음이 하이라인 텅에 하늘에 물든 노을보다 더 밝고 뜨겁게 느껴진다.



하이라인 공원 / 철도에서 자생하는 식물들과 하이라인 디자인(팀이 현장에서 회의하는 모습)



도시 건물들 사이로 보이는 하이라인철도 / 훌륭스럽게 버려진 하이라인 철도

특허 제10-1036741호

'우리꽃'이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조성하는
한국식 암석정원

ARI가든

(Alpine Rock Island Garden)

특징

1. 기존의 자연여건을 살리면서 돌과 다양한 종류의 식물들을 이용하여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리고 고급스럽게 연출하는 새로운 타입의 경관연출기법
2. 우리나라의 기후조건 등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식재패턴면에서도 새롭게 이루어지는 암석정원
3. 식물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후 식물의 자연스런 천이과정까지 녹여내는 전문가용 정원
4. 봄부터 가을까지는 물론 동절기에도 억새류, 상록성의 식물들의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있도록 조성하여 최고의 경관적 암석정원을 연출



▲대명메이스트C, C



▲라데니C, C



▲파주서재리 마을



▲중부C, C



▲스카이밸리C, C



▲동일파인밸리C, C



▲두산중공업
게스트하우스



▲서원밸리C, C



▲아시아나C, C



▲이천연구소



▲영신 컨테스



▲영신 호수공원



▲화순광설운동장



() (주) 석화수 시공문의 : 031) 634-7990, 031) 634-0326~8

▲중부C, C